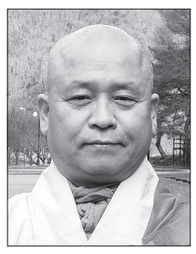
법주사 · 백양사 주지후보 확정

법주사 정도 · 백양사 무공 스님


정도 스님


무공 스님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후보에 정도 스님과 무공 스님이 각각 당선됐다.

먼저 제5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 법주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현 주지 법주 스님의 당선을 확정했다.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314명 중 256명이 참석했으며, 정도 스님은 173표를 얻어 77표를 얻은 노현 스님을 제치고 주지후보로 당선됐다. 무효표는 3표.

정도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과 1979년 각각 법주사와 범어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충주 창룡사 주지 및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2016년 3월부터 법주사 주지와 충북불교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제18교구 선관위는 3월 3일 일주문 옆 주차장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출마한 무공 스님을 주지후보자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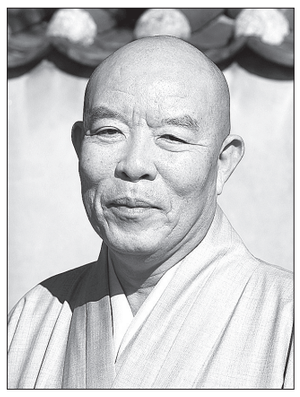
무공 스님은 "그동안 중단된 고불선원을 복원하고, 염불원, 율원, 강원 등을 정상화시켜 문도스님의 여망에 따라 고불총림을 복원하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무공 스님은 지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백양사에서 암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승가대학과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백양사 재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백양사 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윤호섭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광 前동대 총장 '청조근정훈장'

33년 이상 교육자로 불교연구 · 대학발전 이끌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제18대 총장을 역임한 보광 스님<사진>이 정부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학문과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청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청조근정훈장은 재직기간 33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중 총장 경력자를 특별추천 받아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이다.

보광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에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후진양성과 대승불교 전반에 걸쳐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으며, 특히 불교학자로서 '용성선사 연구', '신라정토사상연구' 등 정토학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

1999년부터 국제전자불전협회 한국지부장 및 국제공동회장으로 불전전산화 사업을 추진, 불교경전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 · 전산화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모교인 동국대 제18대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외평가 상승 및 대형 국책과제 수주, 600여억 원의 기부금 모금과 등록금 외 수입확충을 통해 건실한 대학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오랜 기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양한 인권을 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총장취임하면서 인권 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에 인권센터를 신설하였고, 대학원생 지도교수 자유선택제 시행과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 등 대학의 인권친화적 문화조성에 기여했다.

이밖에 지난 2월 말 퇴직한 동국대 교원 중 장태무 교수(홍조근정훈장), 김선정 교수(녹조근정훈장), 권동희 교수 (옥조근정훈장), 전영일 교수(근정포장), 유국현 교수(대통령표창), 민창식 교수(대통령표창), 강춘애 교수(교육부장관표창) 등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전북 주요 봉축행사 일정 확정

4월 4일 봉축기원탑 점등부터
행복바라미 · 합창제 등 이어져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올해 주요 봉축행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성우 · 진성)는 2월 29일 전주 수현사 2층 교육실에서 봉축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동봉축위원장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 지홍 스님, 총지종 지정정사를 비롯한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대표, 전주 · 완주 지역 사찰 주지스님, 이근재 전라북도 불교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각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봉축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봉축행사일정과 약 1억여 원의 예산안을 검토했다.

전북봉축위는 봉축기간을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도내 각 지역에서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봉축행사는 4월 4일 전주역 앞 마중길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을 연다. 5월 12일 전북어린이 큰잔치, 임실 6탄약창 연등제, 전북불교합창제, 청소년 모악축제 등이 각 지역에서 열리고, 4월 25일에는 전북도청 광장에서 행복바라미 축제와 전라북도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등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봉축위원회는 전북지역의 각 도시 주요도로에 봉축연등을 설치하고 부처님오신날을 전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로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역 앞 봉축기원탑과 별도로 전라북도 도청 광장에는 대형 8각 봉축탑을 설치하기로 했다.

불교문화행사로는 전주 수현사 큰법당에서 불교합창제, 덕진공원에서 어린이잔치,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전북 주요도시에서는 시차를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크고 작은 연등축제가 봉행된다. 또한 각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법회와 전북경찰청 전의경을 위한 위문법회, 교도소 방문 등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축행사도 열린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는 이외에 전주시의 청년신용불량자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신용회복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전국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올해 봉축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통해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봉축위는 이번 봉축행사 일정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추이를 지켜보며, 각 종단과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여비고 영인본 2점 기증

소장자 장윤석 씨, 조계종 총무원에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보물 제15%호 동여비고(東輿備攷) 소장자 장윤석 씨에게 영인본 2점을을 기증받았다.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신도인 장 씨는 "사찰과 관련된 명칭이 다수 수록돼 있는 만큼 불교계에서 좋은 곳에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중앙신도회 희망등 캠페인

희망등 만들기 키트 240개 대의원에 전달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2020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등 나눔캠페인' 참여 안내문과 희망등 만들기 키트 240개를 2월 28일 전체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신도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찰 출입은 물론 여러 신행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가정에서 직접 정성을 담아 연등을 만들며 우리 이웃을 위로하고 극복하자"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선별보건소 마스크 전달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청도 · 경산 보건소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현중)는 3월 5일 청도와 경산 선별보건소에 마스크, 멸균장갑, 손세정제 등 900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마음을 냈다"며 "의료진과 지역 주민들의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교원 보직 인사발령

◈ **승진**

부속기관장 △대학미디어센터장 이경식

실 · 팀장 △재무팀장 겸 산학회계팀장 이혁준 △문과대학 · 이과대학 학사운영실장 박선희 △역량개발센터장 유 진

◈ **전보**

△글로벌교류팀장 이연주 △산학지원실장 조순식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 · 경찰사법대학(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장 문상국 △글로벌입학팀장 겸 글로벌인재지원팀장 원충희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 언론정보/국제정보보호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최기석 △예술대학(문화예술대학원) ·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행정팀장 김봉주 △입학관리실장 겸 입학사정관실장 김진환 △BMC산학협력팀장 김병호 △연구기획실장 변승재 △창업진흥센터장 신하균 △산학기획실장 겸 산학감사팀장 유광호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 행정지원실장 겸 AT행정팀장 박혁상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